

제6차 발리 민주주의 포럼 발언문 국문 요지

1 인사 말씀

- 발리 민주주의 포럼이 2008년 이후 유도요노 대통령의 탁월한 리더십 아래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넘어 민주주의 목적을 위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건설적 대화의 장으로 발전해 오고 있는 것을 평가함.

2 민주주의와 다원주의와의 관계

- 비민주적 사회의 특징은 정치·경제·군사·문화 권력과 영향력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는 특성을 가짐. 이에 반해 민주주의는 다양한 이해관계, 가치 등을 가진 구성원들이 공동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되어 필연적으로 사회의 다원성이 증가하는바, 그 결과로서 갈등 증대는 불가피함.
- 특히 최근에는 정보화, 세계화로 인해 국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원들의 다양성이 유례없이 증대하고 있고, 이러한 다양한 행위자들의 정치 참여 및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는 수단 또한 증가하고 있어, 민주주의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다원적 사회에서의 민주주의 공고화'라는 금번 포럼 주제는 매우 적절하고, 모든 국가들의 공통 관심사를 반영한다고 생각함.

3 한국의 민주주의·경제발전 경험 공유 및 현 정부의 관련 노력 설명

- 한국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단기간 내에 동시에 성공적으로 이뤄낸 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그러나 동 과정은 단연코 쉽지 않았음. 많은 도전과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고통스러운 개혁과 조정의

과정을 거쳐왔음. 때로는 경제성장 우선 논리에 민주화를 향한 발걸음이 더더진 적도 있었으며, 정치 민주화 및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진보·보수간, 노사간, 세대간, 계층간 갈등 등 다양한 갈등을 경험함. 한국의 독특한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공유하고자 함.

- '다원적 사회에서의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제도화에 의해 뒷받침되는 포용적 성장이 필요함. 다양한 사회 경제적 및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메카니즘도 또한 필요함.
- 첫째, 민주주의의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of democracy)는 다원화된 행위자들의 다양하고 상충된 이해관계, 요구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중요함.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제도 실시, △정부의 공정성 및 투명성 증대, △정당의 활성화, △언론 기능 및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 등 제도화된 민주주의는 특정 집단의 권력 독점 및 남용을 견제하고, 다양한 집단의 의사가 정당하게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확대함으로써 진정한 사회 통합(social cohesion)이 달성될 수 있음.
- 둘째, 경제적·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 소외, 취약계층을 끌어안는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어야 함. 개인 및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나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음. 경제적 불평등이 큰 사회는 실질적인 정치적 민주화를 이룰 수 없으며, 경제적 정의 없이는 사회적 갈등 해결도 불가능함.
- 한국의 경우에도, 충돌하는 요구사항과 이익을 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였음.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시기에, 국민들의 컨센서스에 기반하여 정치적·경제적 개혁을 추진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음. 드골 전 프랑스 대통령이 '200개 종류의 치즈를 가진 국가를 경영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던 것처럼 '300개 종류의 김치를 가지고 있는 국가를 경영하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었음.

- 셋째, 충돌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효율적인 메커니즘(conflicts-resolving mechanism) 또한 중요함. 갈등의 원인 해결이나 여성, 장애인, 성적 소수자, 노령인구 등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서는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끊임없는 협의와 공론화를 통한 대규모의 사회적 합의(grand social contract)가 형성되어야 함. 지속적인 사회적 담론의 장(場) 제공 등 이를 가능케 하는 정치 문화의 양성 또한 필요함.
- 한국은 △법치주의 확립,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 △노사정 체제 운영 등을 통해 정치적 민주화를 위한 민주주의의 제도화 및 경제적 민주화를 추진해 왔음. 현재 우리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음. 한국은 동북아 최초 여성 대통령 하에서 사회통합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로부터 국민으로 관심을 전환하여, 개발의 이익이 사회 각각 그리고 모든 구성원들에 의해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국민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동 정책은 또한 정부-국민간, 국민간 '신뢰의 문화(culture of trust)'를 형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바, 최근 이주민, 다문화 가족의 급증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변화 속에서 더 중요성을 가짐.
- 물론 모든 국가는 각기 상이한 정치·사회적 문화와 상황에 처하여 있는바, 한 국가의 성공 사례가 다른 국가에 대한 일률적인 해답을 제시할 수 없으나, 각 국가가 다원적 사회로의 발전 과정에서 서로의 경험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4 맺음말씀

- 인도네시아의 상징인 '가루다'(독수리 모양의 새)가 제시하는 '다양성 속의 통일'이라는 문구(고대 자바 고어에서 유래)는 인도네시아가 다양한 인종, 종교, 언어, 민족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다원적 사회를 추구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한 사회의 다원성 증가는 일견 동 사회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증가시키는 원심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나, 앞서 제시한 정치적·

경제적 민주화 과정을 통한 사회 통합 달성 노력으로 국가의 발전을 가능케 할 수 있음. 반기문 사무총장이 ‘민주화는 국민 개인과 많은 공동체 그리고 모든 국가들의 오랜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언급한 바 있듯이, 민주주의는 한 번 성취되었다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며, 모든 국가 구성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의지가 있을 때에만 다원적 사회의 도래로 인한 갈등 증폭과 같은 새로운 도전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음.

- 향후 한국 정부는 민주주의 및 경제성장 과정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민주주의 증진과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 동참코자 함.

/끝/